

보도분류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보도일시	2021. 9. 16 (목)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과	투자유치기획과
담 당	과장 정경원, 투자협력팀장 이종현, 담당 이명숙(032-453-7313)

“ESG 경영 · IFEZ 사회공헌 사업 통해 동반 성장”

인천경제청, ‘제3회 IFEZ 혁신성장 플랫폼-ESG 경영 강의’ 개최, 주목
 IFEZ 입주기업, 기업경영 뉴 패러다임 ESG경영에 높은 관심 반영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사회공헌 사업에 기업들의 많은 관심” 당부

- ESG 경영이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와 관련한 자리를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 ESG 경영은 ‘Environment(환경보호)’, ‘Social(사회공헌)’, ‘Governance(윤리경영)’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다. 기업이 경영이나 투자를 할 때 매출과 같은 재무적 요소에 더해 ESG같은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해 경영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다.
- 인천경제청은 16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비즈니스센터에서 ‘제3회 IFEZ 혁신성장 플랫폼-ESG 경영강의’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IFEZ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ESG 경영에 대한 흐름과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에는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을 비롯 포스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TOK첨단재료, 대동도어, 이너트론, 아이리스크리아, 토비스, 경신, 유진로봇, 만도브로제, 캄시스, DM바이오, 아이센스, 안센백

신, 경신,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디에스 이 등 20여 개 기업 30여명의 IFEZ 입주기업 관계자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 ESG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 행사는 IFEZ 정책 및 성과 소개, IFEZ 사회공헌 활동 소개에 이어 김종대 인하대 교수(경영학과·지속가능연구소 ESG센터장)의 ‘ESG시대의 기업대응 전략’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 인천경제청과 IFEZ 입주기업의 후원으로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아아동·청소년들의 가정에 도배나 책상 등 학습가구를 지원, 공부방을 꾸며주는 ‘IFEZ 행복한 공부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는 행복한 공부방을 비롯한 인천경제청의 사회공헌사업 활동을 소개하고 ESG 경영의 사회공헌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랐다.
- 김종대 교수는 “ESG는 투자자들이 기업 성과를 평가할 때 재무적 성과 외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여 미래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부상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위험관리와 가치창출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원재 청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오늘 ESG경영 강의가 IFEZ 입주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IFEZ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